꽃분이가 데려온 사람

렴정실

평양대극장앞이다. 눈부신 봄해빛이 따사로이 쓰다듬는 수도의 중심거리에 우뚝 솟은 크고 덩실한 건물의 푸른 지붕밑으로 울긋불긋 명절옷차림을 한 남녀로소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고있다.

태양절을 경축하여 진행되는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공연이 대성황리에 며칠째 계속되고있는것이다.

연방 멎어서는 뻐스에서 내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선의 사절들이 서로서로 반갑게 악수하며 웃는 모습은 명절의 분위기를 더 한층 돋구어주는듯 싶었다. 이미 화면을 통해 낯을 익힌 이름있는 예술인들, 체육인들, 또 그리고 정계, 학계, 사회계의 알려진 인사들…

나도 주체사상신봉자들과 함께 극장의 출입구 층계에 다가서고있었다.

이때 문득 누군가가 뒤에서 나의 팔소매를 잡아 멈춰세우는것이였다. 뒤돌아보니 그는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대표단 단장인 마니크 바하두르 라마였다. 무슨 일로?!

습관처럼 눈을 깜박이는 나에게 그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던지며 극장의 오른쪽벽에 있는 벽화 《꽃파는 처녀》를 가리켰다.

우리 둘은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다.

아, 꽃파는 처녀!

전날 저녁 숙소에서 바로 이 꽃파는 처녀에 대해 나와 마니크의 일행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벽화를 무심히 보며 스쳐지났으니…

저도모르게 갈마드는 자책감으로 나는 슬며시 얼굴을 붉히였다. 먼 이국땅에서 온 그들의 마음속에 그토록 유정하게 깃들어있는 꽃분이였다. 허나 나는 그 앞을 지나면서도 왜서 그들처럼 발걸음을 멈춰서지 못하였을가?

이 땅의 찬바람, 찬눈비를 다 막아주는 사회주의제도의 따뜻한 지붕아래서 정원의 화초처럼 풍파 모르고 자라왔기때문에 그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이제는 아예 잊은것이 아닐가.

나는 벽화속의 꽃파는 처녀를 새삼스레 올려보았다.

지난 세기 초 조선의 농촌이라면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머슴군 가정의 처녀 꽃분이!

오늘도 꽃바구니를 안고있는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사회에서는 결코 어떤 정성이나 동정으로써는 불쌍한 사람들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으며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혁명의 한길에 떨쳐나설 때에라야만이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할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있는듯.

《꽃분이는 나를 여기 평양으로 데려온 처녀입니다.》

마니크의 생각깊은 목소리였다. 꽃분이를 쳐다보는 그의 주름 잡힌 두눈가에 무엇인가 번뜩이는것이 얼핏 보여온다.

순간 나의 귀전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때가 내나이 17 살때였지요.》

전날 저녁 숙소에서 들은 그의 이야기이다.

마니크의 추억의 배가 기슭을 떠나 거슬러 올라간 아득한 저 멀리 홍안의 시절은 어디였던가.

…

《조선영화 보러가자-》

수닭의 울음소리보다 더 높이 울려퍼지는 짱짱한 총각애의 목소리가 까뜨만두에서 50 키로나 떨어진 카블이라는 작은 농촌마을의 새벽공기를 흔든다.

며칠전부터 까뜨만두에 있는 조선대사관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마을의 자기 또래들을 추동한 마니크는 약속된 날인 일요일이 오자 날이 밝기전부터 깨여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빨리 일어나라고 고함치고 있는것이였다.

키가 작아 나이가 무척 어려보여도 감때사나운 성격인 그에게 동무들은 코기러기를 따르듯 호감을 가지고 끌려다닌다. 이 새벽도 모두가 마치 명령을 받은듯이 누구하나 늦장을 부리지 않고 황황히

마을길 한복판으로 뛰쳐나왔다. 좀 낡기는 했어도 어머니들이 밤새 깨끗이 빨아 말리워 눈처럼 새하얘진 민족옷들을 떨쳐입은 그들의 얼굴은 새벽노을이 비끼여 불깃불깃하다. 깃이 서고 소매가 짧은데 아래옆을 터친 샤쯔며 넙적다리부분은 넓고 종아리부분은 좁은 바지에 제법 구색에 맞춰 걸친 긴 조끼 등 그 누구나의 옷차림을 보아도 어쩌다 시내에 나가는 기쁨에 들뜬 자식들이 주눅이 들지 않도록 왼심을 써준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려 흠잡을데 없었다. 거기에다가 몇명의 총각녀석들은 여러가지 색갈의 둥글은 모자까지 머리우에 올려놓아 제법 어른스러워보였다.

아직도 눈가장자리에 눈곱이 토들토들 매달린 잠꾸러기 남동생까지 깨워가지고 함께 나온 한 처녀애가 총각애들을 따라다닌다고 무작정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까뜨만두를 구경하러 간다고 응석부리듯 매달려 겨우 승낙을 받아낸 이야기를 하며 깔깔댄다.

《대단하구나.》

《너 혹시 마니크가 가자고 해서 성수가 난게 아니야?》

싱거운 한 녀석이 괜히 시까스르다가 잔등에 처녀의 주먹찜을 받는다.

《하하하…》

웃음보가 터져올랐다. 그 어느 시대이건 녀자들은 태여나서부터 집안에서만 맴돌아야 한다는 남존녀비의 봉건적구속을 시끄럽게 여기는 처녀들이 있는 법이다. 짧은 소매적삼에 치마를 입고 띠를 맨 다음 머리와 어깨를 덮는 수건을 쓰고 비록 유리구슬로 만들기는 하였지만 진짜 보석을 박은것 같아 보이는_귀고리, 팔찌, 가락지로 손과 발까지 장식하고 나선 처녀애들의 모습앞에 총각들은 은근히 기가 질린듯 괜히 힐끔거리며 길섶의 이슬머금은 꽃송이들을 발로 툭툭 차기도 한다. 그러는 사내녀석들의 얼굴마다엔 웃음이 벙글거린다. 아무튼 처녀들과 함께 가는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니까.

그때까지만도 카블에서 까뜨만두까지 가는 뻐스가 없어 사람들은

어쩌다 장보러가자고 해도 하늘에 색바랜 별들이 아직 떠있을 무렵부터 집을 나서야 하였다.

마을에 중학교는 없어 소학교나 겨우 다니고 등뼈가 굳기도전에 농사를 짓느라 늘쌍 밭에서 가대기를 끌던 농군들의 자식들이 언제 영화를 볼 꿈을 꾸어나봤으랴.

그것도 조선영화라니 아, 정말…

마니크의 말을 들어보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아래 모두가 평등하고 인민이 공장과 농촌의 주인이 된 착취와 압박이 없는 희한한 나라라고 한다.

그래도 카블마을에서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있는 아버지덕으로 크게 먹고살 걱정이 없이 살면서 다른 고장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나온 마니크가 본게 많고 들은게 많으니 그의 말이 옳을거야.

찧고 까불며 마니크의 뒤를 따라 하나, 둘 별들이 사라져내리는 언덕너머를 향하여 부지런히 발을 옮기는 일행은 모두 열다섯이나 되였다.

얼마나 걸었는지…

떠날 땐 온갖 이야기로 쉴새 없던 입들이 차츰 말문을 닫기 시작했다. 모두 배가 출출해왔던것이다. 살림이 넉넉치 못한 집형편에 하루 일을 하지 않고 놀러가는 길이라 집안 식구들에게 미안하여 보통 어느 집에서나 먹는 강냉이와 좁쌀가루로 만든 기름과자조차 주머니에 넣고 떠나지 못하였다.

누군가가 길옆에 있는 어느 집 바나나밭으로 뛰여들어가더니 새벽일을 나온 주인에게 슬쩍 다가갔다.

산이 많은 여기 네팔땅에서는 어느 산을 쳐다보아도 강냉이나 벼, 보리, 밀을 심고 가꾸는 다락밭과 다락논천지이다.

씨붙임때나 비료주러 갈 때 그리고 가을걷이 하러 갈 때면 아예 산에서 며칠 먹고 자면서 일할 차비를 든든히 해가지고 떠나야 한다.

그래도 그 땅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해마다 다락논, 다락밭면적이 늘어나기만 한다. 산세가 험한 곳에 자꾸만 땅을 일구니 자연히 큰물피해를 입기 마련이였다.

그러나 까뜨만두와 그 주변은 골짜기와 분지여서 웬간한 집들에서는 다 바나나를 비롯한 열대과일을 재배하고있기때문에 지나가던 애들이 하나 따먹겠다고 하여 고래고래 소리치는 일이 없다.

주인의 승낙을 받은 그는 늘쌍 허리에 차고 다니는 쿠크리(넓고 등이 굽은 무거운 칼)로 당장 떨어질듯 노오랗게 익은 한아름이나 되는 바나나를 한송이 뚝 따안고 나와 앞서가는 동무들의 한복판에 뛰여들었다.

《와!》

아이들은 환성을 올렸다. 먹을 때만큼 즐거운 순간이 어데 있으랴. 그들은 저마끔 달라붙어 키들거리며 한가닥한가닥 단숨에 요정내였다. 바나나는 크고 달았지만 한창나이의 젊음을 치달아오르는 열다섯의 처녀, 총각들이 배를 두드리며 실컷 먹기에는 작았다. 그러나 서로서로 위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 남아 돌아갈 정도로 충분하였다.

드디여 불쑥해진 배를 내밀며 다시금 기세좋게 행진해가는 아이들.

그들이 내짚는 힘찬 그 걸음걸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조선의 영화를 보러간다는 일종의 자부심으로 끓어번지는 환희의 마음이 내뻗치였으리라.

어느덧 까뜨만두에 도착했을 때에는 해가 하늘중천에서 타고있었다. 나라의 정부청사들이 들어앉은 수도라고 하지만 거리에는 온통 살찐 소들과 개, 원숭이들이 사람들의 틈을 시끄러울 정도로 오가다나니 발길에 채우는것이 짐승의 분비물들이였다. 처녀애들은 어지러운데에 넘어질가봐 머리와 어깨를 덮는 숄을 손으로 꼭 잡고 발아래만을 보며 걸었다.

그러나 수도는 역시 나라에서 제일 큰 상업중심이여서 시골에서는 볼수 없었던 류다른 풍경들이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썽거리게 하여 인차 그런 걱정을 말끔히 털어버리였다. 마니크를 내놓고는 모두

이 도시가 처음이였던것이다.

길옆의 집집들에서 운영하는 가게방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형형색색의 물건들.

대체로 저것들은 국경지대인 비르간쥐를 통하여 인디아에서 들여오는 상품들이라지?.

하지만 그 물건들도 아이들의 눈길을 오래 끌지 못하였다. 그들은 또다시 배가 고파났던것이다.

야참, 여기에는 각양각색의 크고작은 간판을 써붙인 음식점들이 다닥다닥 들어앉아있을뿐 바나나밭은 없구나.

앞에도 뒤에도 창자를 자극하는 향취가 몰몰 새여나오는 창문들, 출입문들…

누가 감히 그런 곳으로 들어갈념 하랴. 돈이 없는데야.

아이들은 입술을 감빨며 저저마다 자기의 눈빛이 남들에게 들킬세라 얼굴을 돌리였다.

이때 마니크가 조금도 머뭇거림도 없이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며 아이들을 어서 오라고 손짓하였다.

잠시 얼굴을 마주 보던 아이들은 와- 몰려들어갔다.

《마니크가 우릴 먹여주려는게지?》

《마니크. 고마워.》

먹기도 전에 인사하는 애가 다 있었다. 마니크가 뭐라고 말했는지 긴 식탁우에는 아까부터 꼬르륵 소리를 내던 창자를 드디여 진정시키는 남새와 매운향 비빔밥이 매 아이들 앞에 한그릇씩 놓여지였다.

집에서는 맡아보지 못했던 온갖 향기로운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아이들은 부지런히 손으로 밥을 떠 입에 넣었다. 잠간새에 그릇을 바닥내였다. 출출했던지라 좀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누구도 내색하지 않았다.

남의 주머니의 돈을 털어 얻어먹으면서 배가 부를걸 생각하는 바보가 어디 있으랴.

《정말 잘 먹었어.》

다 먹고난 다음에야 아이들은 마니크에게 한마디씩 하였다.

마니크는 씩 웃을뿐이였다. 이른 새벽부터 법석 떠들며 아이들을 깨울 때와는 달리 그는 걸어오는 전기간은 물론 지금도 말없이 무게있게 처신하였다. 아마도 그래서 아이들은 물론 동네 어른들까지 마니크의 입에서 일단 나온 말이면 누구나 반대의향을 표시하는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마을에서 마니크의 집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부농이였다. 그의 부모들은 자식이 조상들이 물려준 그 많은 땅을 그대로 넘겨받고 농사를 짓기를 바라고있었으나 마니크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읽은 책들이 얼마이던가.

우리 네팔에서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리익을 위하여서는 어떤 사상으로 사람들이 계몽되여야 할것인가.

오래동안 영국의 속박을 받으며 자주를 잃은 나라, 독립국가라고 하지만 정치와 경제, 문화 그 어디서나 사대와 교조가 민족의 넋을 흐트러지게 하는 이 나라.

우리는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아니, 자기를 찾아야 한다.

그리도 용맹하고 그리도 투지있어 아득한 먼 옛날 침략자들앞에 머리숙인적 없다던 고르카족, 네팔족의 기상을 다시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해마다 젊은이로 태여나 자기 나라의 방위가 아니라 영국의 왕실 호위병으로 뽑히워가는것을 제일 영광스러워해야 하는가.

어쩌면 자기 나라의 대학이 아니라 인디아나 오스트랄리아, 영국, 미국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여야 국가정치기관에 들어갈수 있단말인가.

마니크의 나이는 어려도 생각은 어리지 않았다.

그는 조선대사관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조선의 자주, 자립, 자위의 정신, 주체사상에 차츰 매혹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정신적앙양을 동무들과 나누고싶었다.

동무들이 자기의 세계를 알게 하고싶었다.

이런 날을 위해 그는 용돈으로 쓰라고 부모들이 조금씩 주는 돈을 저축하고있었던지.

마니크는 쟘시켈(지역이름)로 아이들을 이끌고갔다. 바로 거기에 조선대사관(당시)이 있었던것이다.

《참사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마니크를 알아본 조선대사관의 참사는 기쁜듯 두눈을 크게 뜨며 네팔사람들처럼 친절하게 손을 맞붙혀 가슴노리에까지 들어올리며 말하였다.

《나마스떼?》 (안녕하십니까?)

그는 평시에 네팔사람들이 흔히 주고받는 인사말을 네팔어로 매우 듣기좋게 발음하였다.

그는 마니크가 알고있는 유일한 조선대사관사람이였다. 참사는 온 얼굴에 함뿍 밝은 미소를 띠우고 마니크의 친구들을 자기의 친구들이나 되는듯이 한사람한사람 따뜻이 손까지 잡아주었다.

영사실로 안내된 그들은 약속대로 조선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보았다.

…

《나는 그날 꽃분이와 처음 만났습니다. 나와 우리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처녀애들은 왕왕 소리까지 내며 울었습니다.

꽃분이의 가정이 겪는 피눈물 나는 생활은 신통히도 우리 네팔의 가난한 농민들의 집집에서 겪는 괴로움과 슬픔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영화를 보며 마음속으로 꽃분이와 말했습니다.

<꽃분아, 꽃분아, 네가 가르쳐주는구나. 착취계급들과는 노예로 살아야 차례지는건 오직 죽음뿐이라는것을,

아, 투쟁만이 살길이구나. 그래, 그래, 알았어. 꽃분아->

아마 그때 내 나이와 영화에서 나오는 꽃분이나이가 비슷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꽃분이와 스스럼없이 너나들이로 말을 하게 되더군요.

그날 우리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집으로 돌아오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다.

꽃사시오 꽃사시오 어여쁜 빨간꽃
향기롭고 빛갈고운 아름다운 빨간꽃
앓는 엄마 약구하려 정성담아 가꾼꽃
꽃사시오 꽃사시오 이꽃이꽃 빨간꽃

그들의 눈앞에는 하늘의 달과 함께 꽃분이가 그냥 따라오고있었다. 아니, 온갖 고역과 멸시를 피눈물로 참아가며 꽃을 팔던 그 모습이, 약값을 마련하였지만 그 약 한첩도 써보지 못한채 숨진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하던 그 모습이, 눈먼 동생을 홀로 두고 먼 길을 찾아갔으나 감옥에 갇힌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지던 그 모습이, 원한을 참을길 없어 불붙는 화로를 지주놈의 면상에 집어던지던 그 모습이 아, 아, 그들을 이끌고 가고있었다.…

산기슭에 곱게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강기슭에 피여 나는 연분홍빛 살구꽃
꽃 사시오 꽃 사시오 이 꽃을 사시면
설음 많은 가슴에도 새 봄빛이 안겨요

길섶의 이슬젖은 풀들이 바지가랭이를 적셔주는 들길을 걸으며 그들의 노래소리는 눈물에 젖어 점점 갈리였다. 눈물에 젖은 그 노래소리는 높지 않아도 멀리멀리 히말라야산줄기에 아니, 세월의

언덕을 넘어 울리여갔다.

《그 길이 꽃분이를 따라 걷기 시작한 우리의 첫길이였습니다. 그날밤 우리가 부른 그 노래는 꽃분이를 따라 계급투쟁의 길을 힘차게 내결을 맹세의 노래였습니다.

혁명을 인식하고 새 삶의 길에 들어서는 꽃분이처럼 그때부터 나는 직업적인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진정을 토로하는 마니크의 말은 나의 심금을 쿵쿵 울리였다.

아, 그랬댔구나.

그날의 애젊은 총각이였던 마니크는 오늘 할아버지가 되였으나 그날의 모습 그대로인 꽃파는 처녀!

눈물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아니라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를 안은 영원한 그 모습으로 처녀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자주위업수행의 한길로 힘차게 부르고있다.

나는 꽃분이가 데려온 사람을 다시금 쳐다보았다.

반백의 키작은 사나이!

오늘도 꽃분이의 웨침을 듣는듯 벽화 《꽃파는 처녀》앞에서 해빛을 마주한 사람처럼 눈시울을 쪼프리며 몇오리 안되는 자기의 흰 머리칼을 손으로 쓰다듬는 마니크.

꽃분이는 정녕 그만을 데려왔던가.

그날밤 마니크와 함께 손잡고 별많은 농촌길을 울며 웃으며 《꽃사시오 꽃사시오》 노래를 부르던 그 처녀가 지금 그의 안해라고 한다.

그도 남편과 함께 꽃분이를 따라왔다.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온 주체사상신봉의 그 길로 꽃분이를 따라섰다고 한다.

아,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인가.

나는 마니크의 일행을 극장의 출입구로 이끌었다. 나에게는 극장에

들어서는 서로 다른 피부색의 모든 사람들이 꽃분이가 데려온 사람처럼 생각되였다.

아, 내마음 영원히 그들과 함께 꽃분이앞에 서있으리라.